

TRÜB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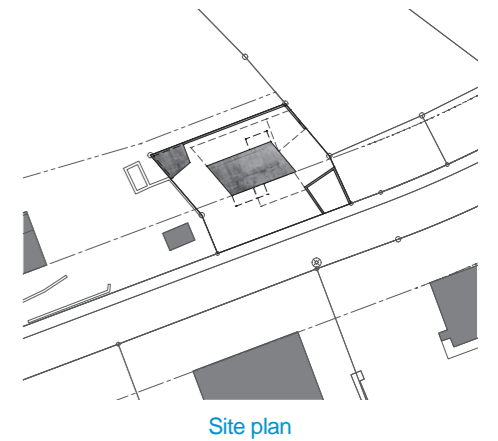
트루벨

L3P architekten / Martin Reusser, Markus Müller, Boris Egli, Frank Schäfer
L3P 아키텍트 / 마틴 리유셀, 마르쿠스 뮐러, 보리스 이글리, 프랑크 셰퍼



Location 8157 Dielsdorf, Switzerland
Function Detached house
Site area 291m²
Landscape design Vetschpartner Landschaftsarchitekten
Structural engineer Bona + Fischer Engineers Office
Light planner Lichtblick
Building physics Wichser Akustik & Bauphysik
Photographer Vito Stallone

위치 스위스 다이엘스도르프 8157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91㎡
사진 비토 스탈론





Model



After the removal of border limit clearances only 5m x 9m are left over in this small steep lot at the vineyard at Dielsdorf. With a maximum of 83m² above-ground level living, this lot has long been considered unbuildable. A classical residential house with solid outer walls, conventional access staircase and traffic area has no space on this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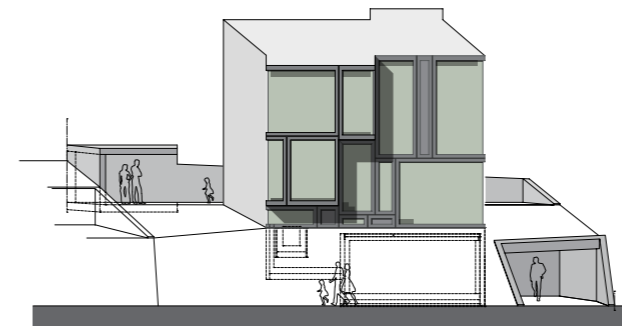
Room and structure are one, resulting from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the architects and building engineer. The sculptured reinforced concrete and steel framework in black-coloured exposed concrete is omnipresent: walls, ceilings, floors and even the bookcase are a part of the framework. Floor beddings, sound insulation, flooring, plaster work and paint work that would cover the framework do not appear. The residence is reduced to the elementaries on naked exposed concrete, complemented through diverse handmade furniture and enveloped in a glass mantle.

The subterranean access to the building is through the carport. One enters the building through an up to 5.44m high entrée. A cellar and house services room are attached to the entrée. A double bedroom with bath is likewise entrenched into the slope. These rooms are provided with light through both a space divided into different heights and a skylight. This double bedroom is sectioned by a middle wall, which like an anchor, builds the static abutment for the main middle wall. Ascending the stairs one comes to the concrete bookcase, which acts as a horizontal bracing for the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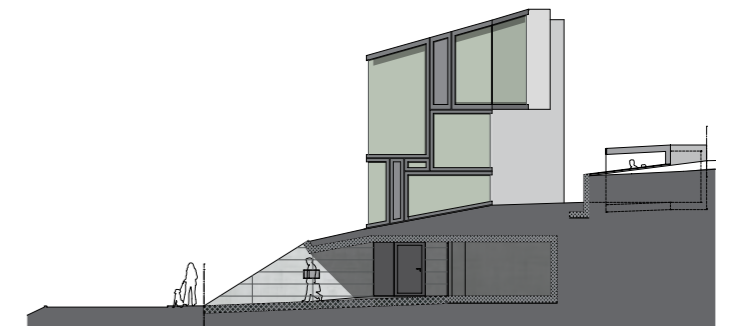
다이엘스도르프 포도밭에 있는 대지에서 불필요한 경계 제한들을 없애고 나니 5m x 9m 크기의 경사가 가파르고 작은 부지가 남았다. 최대 83제곱미터의 크기가 허용 되는 이 부지는 오래도록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쓸모 없는 부지로 여겨졌었다. 견고한 외벽, 관례적인 계단과 주차 공간 등이 있는 정통적 스타일의 주택은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공간과 구조는 하나이다. 이는 건축가들과 빌딩 엔지니어들의 협력적인 연구 끝에 나온 결과이다. 검은색의 강화 콘크리트, 철강구조는 이 건물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벽, 천장, 바닥, 그리고 심지어 책장마저도 집의 구조의 한 부분이다. 플로어 베딩, 방음, 바닥재, 회반죽 공사와 페인트 공사는 건물의 뼈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집은 콘크리트를 아무 것도 손대지 않은 채로 놔두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수제 가구와 건물을 감싼 유리창 덕분에 주거공간의 노출 콘크리트의 요소들을 줄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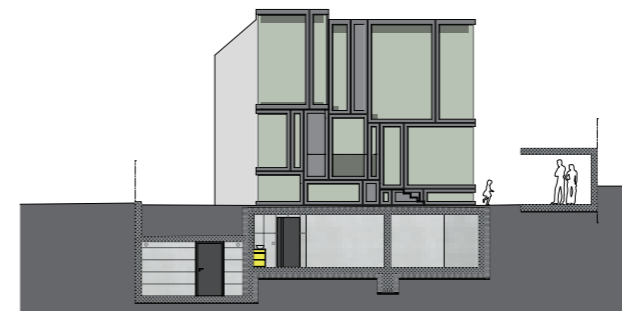
지하는 간이 차고를 통해서 이어진다. 건물에 들어서서 5.44m 높이의 입구를 지난다. 지하 저장소와 서비스룸은 이 입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 화장실을 갖춘 두 개의 침실 역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방들은 다른 높이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빛을 받고, 또한 천장에 만든 채광창을 통해서도 빛을 받는다. 이 두 개의 침실은 중간의 벽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벽은 마치 닻과도 같아서 중간의 메인 벽의 안정적인 받침대 역할을 한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책장을 만나게 된다. 이 책장은 마치 집 구조의 수평적인 뼈대에도 같은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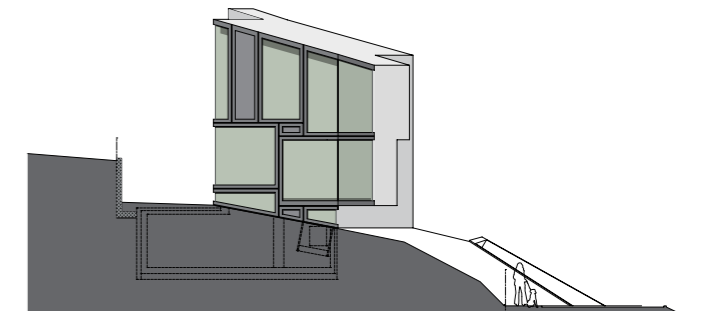
Fron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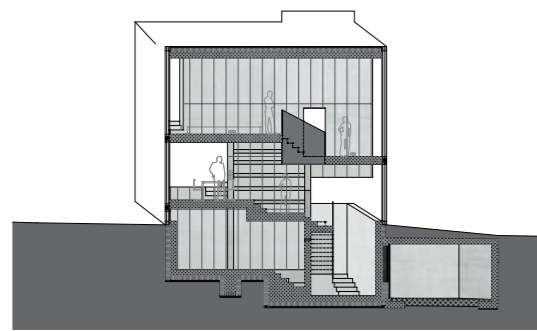
Right elevation



Rear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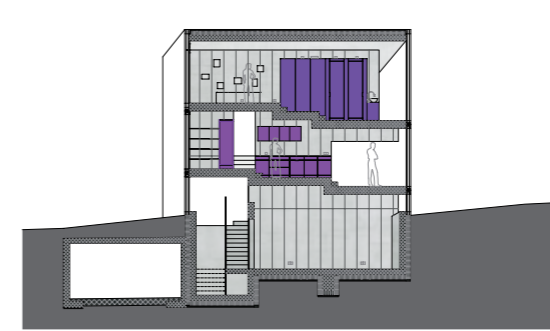
Lef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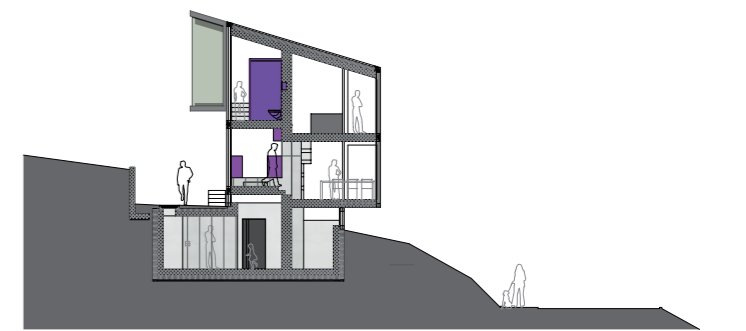
Cross section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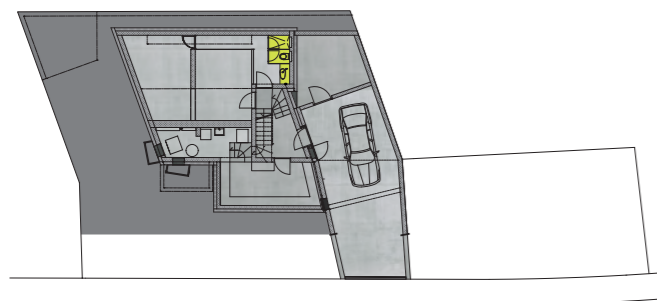
Longitudinal section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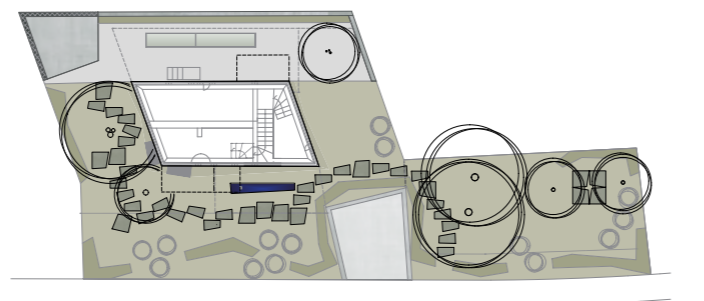
Cross sect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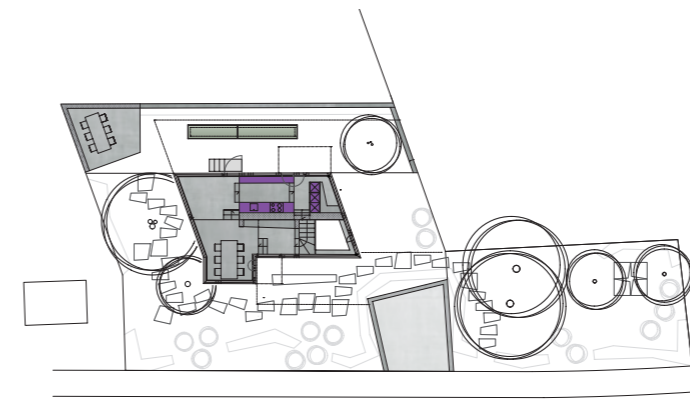
Longitudinal sect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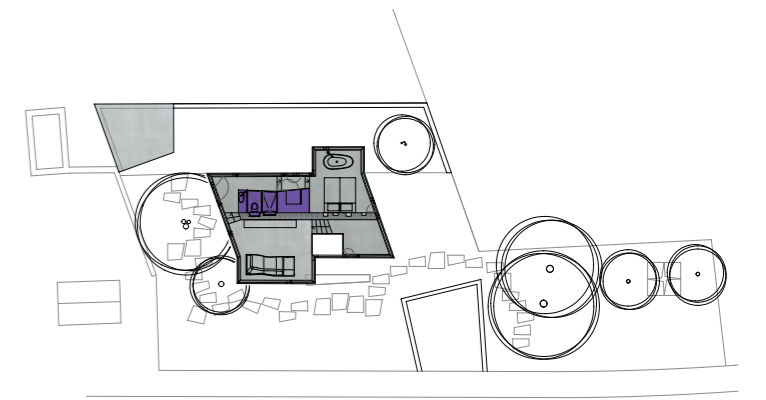
First basement floor plan



First floor plan



Second floor plan



Third floor plan